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강동석과 함께하는 사랑의바이올린 연주회'. 이번 공연은 300여명의 아이들을 무보수로 가르친 50여명의 바이올린 전공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무대였다. (사랑의바이올린 제9)

**# 광주여성연극인 동우회는 지난 1998년부터 보육원 등을 찾아 다니며 '남아라 손오공' '옛날 옛적에' '토끼의 재판' 등 아동극을 공연하고 있다.**  
 회원들은 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호주머니를 털어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함께 모여 대본을 완성하고 공연에 사용할 각종 탈과 인형, 무대 의상, 소품과 세트도 직접 제작한다. 힘들기는 하지만 연극을 보고 활짝 웃는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난다.  
 "처음 모임을 만들면서 좋은 일을 해보자고 했어요. 우리가 연극배우들이니 능력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연극을 꾸준히 올리자고 했죠.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업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봉사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 힘들어도 주변 도움 조금씩 받아가며 회원들 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회원 고난영씨)  
**# 지난 1월 12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는 '제1회 강동석과 함께하는 사랑의바이올린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서는 '사랑의바이올린' 홍보대사인 강동석씨를 비롯한 200여명의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한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을 들려줬다.**  
 행사를 마련한 '사랑의바이올린'은 여건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바이올린을 무료로 제공하고 바이올린 전공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레슨을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바이올린 구입비 등은 서울시와 기업체 등이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VI·Violin Volunteer)들은 모두 무보수로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는 바이올린 전공자들이다.  
 현재 전국의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어린이 병동 등 26곳에서 50여명의 바이올린 봉사자가 매주 한차례씩 300여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장하라(목포대 4년)씨는 광주의 반석 성서침례교회에서 6개월째 6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장씨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최근 아이들이 서울 음악회 무대에 서고 난 후 더욱 재미있어하고 의욕이 넘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광주여성연극인 동우회는 불우시설을 방문, 자비로 제작한 아동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토끼의 재판' 공연 모습.

# 나눔의 손에 짙어지는 '문화 향기'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5) 예술가들, 먼저 손 내밀자

Hand in Hand

최근 들어 각종 지원 사업이 많아지면서 보육시설이나 노인·장애인 시설, 병원 등 문화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공연과 문화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와 예술인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에서 탈락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어 아쉬움이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다. 지원과 관계 없이 꾸준히 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모임이나 개인이 많을수록 문화의 향기는 그만큼 짙어진다.  
 또 지원이 끊겨더라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나 공연자로 참여할 예술인들의 참여가 많아져야 한다.  
 사랑실은 노래봉사단(단장 김효중·이하 봉사단)은 지난 1993년 각 방송국 노래 자랑에서 임상한 주부, 공무원, 회사원 90여명이 꾸린 단체다. 봉사단은 지금까지 매일 한차례씩 이일성노원, 민들레 요양원 등 불우 시설을 찾아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390여차례나 공연을 가졌다.  
 공연 경비의 대부분은 단장인 김효중씨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김 씨는 "힘이 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때가 되면 기다리는 어른들을 생각하면 다시 행사를 꾸리게 된다"고 말했다.  
 '동화구연'은 아이들 뿐 아니라 노인들도 즐겁게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색동회 색동어머니 동화구연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10여년전부터 광주·전남 지역 26개 봉사처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복속 회장은 "아이들이나 노인을 장애인들에게 재미있는 대화를 들려주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함께 놀아주면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지역의 경우 예술인들이 각종 문화시설을 '찾아 가는 문화서비스' 구현  
**상설 프로그램·단체 참여 절실**  
 콜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첼리스트송영춘,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씨 등 내로라하는 음악가들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실기 레슨을 해주는 '해피뮤지컬'의 자원봉사자로 참여중이다. 지난 1월 초 서울을 비롯해 광주 등 전국을 돌며 열렸던 첫번째 음악회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또 뮤지컬 스타 전수경, 음악가 원미숙씨 등은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아이들을 1년간 교육시키는 문화재단인 '해피 뮤지컬 스쿨'의 강사로 아이들

을 가르치고 있다.  
 '갯' '오페라의 유령' 등을 제작한 설도윤씨가 만든 (사)공연예술아카데미가 운영하는 '해피 뮤지컬 스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노래, 춤, 연기 등 뮤지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문화 자선학교다.  
 서울의 경우 SK텔레콤의 지원을 받는 '해피 뮤지컬스쿨'처럼 각종 사업의 경비를 적게나마 지원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예술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가 쉽다.  
 하지만 광주 지역은 아직 상설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나눔' 참여가 미미한 편이다. 또 개인적으로 '문화 나눔'에 참여하고 싶어도 활동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화예술인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경우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갖기 힘들다는 점에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대학교나 광주시립 예술단체 등 공익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육문화공동체 '결'의 박형주씨는 "우선은 개인 예술인들의 참여가 우선되어야겠지만 학교나 시립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한사람이 그만두더라도 다음 사람이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심일부동산**  
 ☎ (대)223-1140, 3210 ☎ (인)011-802-2532  
 (광주은행 신복빌딩, 대인동 소방서건-4번)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의실 분 순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대)972-4585 ☎ (인)011-804-8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시거리)  
**★ 급매매 ★**  
 ●첨단지구 비아동 입만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불류상고, 복자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법행정사 2008년 개점지 앞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빅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흥지역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스티플1개  
 -대707 건120 원룸6 무통3 주 인 방3개 보1억2천만 원180만 매4억1천만  
 -대687 건127평+주차장 투룸4 원룸8 보8800만 원300만 원4200만 매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가동 부영④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창동, 비아 중흥④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아동 30m도로 인근 전용면적 4200만 매4억7천만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인합장) ☎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소제지	면적/종	감평가	최저가
동산동 무명피크	32/198	9만	6856
황정동 금호타운	59/33	2944	1932
무명동 부영	24/25	5천	355
연서동 현대	32/58	6천3백	582
금호동 종합리츠	34/28	1933	922
우산동 현대	43/11	1922	824
산리동 그린타워	32/12	1955	783
봉선동 무명피크	32/12	1955	628
동행동 대주빌	78/15	1968	828
지산동 종합단지	32/38	8천3백	326
금호동 로이인	52/48	3955	1932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대지238㎡(72평), 연건평396㎡(120평)인 3층 코너 건물에 3억5천만 원이다.  
 보증금 1억원, 월203만원이 나온다.  
 2004년 10월 완공이며, 연투자수익률11%이상된다.  
 임대수익용으로 적합하다.  
 세금 문제로 인한 급매물. 실 취득가격은 4억5천만원

**전대후문 노래방 215㎡**  
 보증금5,000/월150/습15,000  
 영업기간 10년, 최근 리모델링 최신시설(榻11개, 소방안전필증) 영업시간 19시간(오전11시~새벽6시), 낮에는 중고생/밤에는 대학생  
 광주대학상권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 밀집지역, 도우미 없는 청정지역  
 밤하이 없는 젊은이들의 상권

**전대후문 대로변 1층 166㎡ 상가**  
 보증금 1억, 월7백만원, 습3억5천만원인 상가점포가 매물로 나왔 (분할가능)  
 광주대학 상권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 밀집지역이다.  
 주말 유동인구만 10만이다.  
 커피 뒷공간 87㎡(20평)도 활용가능하다.  
 커피숍, 인형집, 퓨전분식, 이동통신 등 수많은 예비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부터 '리브콜'을 받는다

**북구 운암동 인근 2천세대 아파트상가 2층 학원 198㎡**  
 매매가 21,500만원(용지6,500만원/시설·집기포함)

상가 전속중개계약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BM 公認 仲介士 事務所**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일도심에는 최신형 3개방형 연립주택입니다. 입주할 프랜차이즈 유희공간 상가본의 활용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mobile)010-7288-4351 ☎062)4342-894  
 (전대후문 스타벅스 앞)

**법원경매 전문회사**  
 -불 앞서는 사람들-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인합장) ☎ 062-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청탁서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공고, 전수취기, 가처분, 가압인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가됩니다. (평일전화) ☎ X 0.3025

소제지/면적/종	감평가	최저가	소제지/면적/종	감평가	최저가
해운동/연서동/74/24/281	294200	3981000	상동/연서동/4092/2365	294200	1940000
황정동/연서동/34/28/267	698000	4916000	안동/연서동/401/274	592000	2980000
황정동/5호/사/사/13/21/26	10억	5980000	광동/대우빌/425/278	1940000	1942000
무명동/사/연서동/42/21/12	2922000	19533000	광동/연서동/1/12/278	8980000	49830000
황정동/연서동/38/21/413	15983000	89830000	산리동/연서동/4/25/21/047	8980000	49830000
황정동/연서동/74/28/267	7982000	59726000	황정동/연서동/5호/사/122/278/19	29390000	19530000
광안동/연서동/74/28/267	18억	89700000	남성동/연서동/5호/사/1406/2363	39416000	39430000